

익산시, 오랜 숙원사업 해소

모현택지개발지구 · 오산 영만리 연결도로 이달 초 착공 도 · 농 균형발전 · 고령층 시민들 삶의 질 향상 기대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004년부터 추진하다 예산이 부족으로 10년 넘게 표류했던 모현택지개발지구와 오산면 영만리를 관통하는 1.60km(2차선, 노폭8.0m)의 연결도로 공사를 4월 초 착공한다.

본 도로는 1992년도 익산시 농어촌도로 301호로 지정하였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교행이 어려운 비포장으로 형성되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구간 수차레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확 · 포장 요구가 있었지만 익산

시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아 10년이 넘게 도로 확 · 포장사업이 표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년 1회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 부족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95%를 매입하여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은 최근 오산면 영만리를 비롯한 민석동 농촌지역 주민들과의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그간 불렸던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

추진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연결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모현택지개발지구와 오산면 영만리를 연결하는 도로 확 · 포장공사가 올해 10월말 완료되면 시가지와 접근성이 향상되어 도 · 농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고령층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는 지난 30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각 기관 · 단체, 시민과 공무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만㎡의 사유림에 경제림 육성 및 경관 조성 위한 편백나무와 동백나무 등 3000여 그루를 식재했다.

익산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왕궁 영모묘원 일대 편백 · 동백나무 3천여 그루 식재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난 30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왕궁영모묘원 일대 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각 기관 · 단체, 시민과 공무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만㎡의 사유림에 경제림 육성 및 경관 조성 위한 편백나무와 동백나무 등 3000여 그루를 식재했다.

시는 그동안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년 식목일 행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조림(경제수, 산림재해방지 조림 등), 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다 가치 있는 지역 산림자원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은 "산림이 대기 중 미세먼지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힐링 제공 등 유 · 무형의 혜택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아름다운 숲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올해 10억원 을 투입, 조림 80ha, 숲가꾸기 70ha, 조림지 풀베기 310ha 등의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스탬프 투어 운영

군산시에서는 시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스탬프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선물을 주는 2018 군산시 스탬프 투어를 4월 2일부터 운영한다.

코스는 ▲시 전체코스 15개소 ▲20개 인증사진 지점을 포함한 스탬프 북 코스 ▲시간여행마을 4곳과 고군산군도 3곳을 포함한 리플릿 코스를 만들어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스탬프 투어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또는 시간여행마을에 있는 초원사진관에서 스탬프 책자나 리플릿을 수령해 각 지점 인증 장소에서 직접 인증 도장을 찍거나 인증사진을 촬영하면 되고, 코스를 완료한 관광객은 초원사진관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스탬프 북 완주자를 연말에 군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스탬프 북 완주자를 연말에 군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초대장 발송 및 축제 프로그램 공모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계획 중에 있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3월 23일에 선별한 스탬프 투어 서포터즈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블로그 등을 이용해 시간여행축제와 관광지 홍보를 하는 등 관광 마케팅 방식에 변화를 주게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관광자원 홍보 펼쳐

군산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전시장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박람회'에 참가해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고군산군도 등 군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해 명품 관광지로서의 군산을 널리 알렸다.

각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 민간업체 등 총 300여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는 약 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으며, 특히 올해는 지방의 다양한 특산물이 전시돼 현지 방문객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시는 홍보 부스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관광지로서의 이점을 알리며, 군산의 다양한 특산물과 많은 맛집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홍보활동 중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시간여행마을 주변에 있는 맛집과 이와 연계한 숙박시설 관련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체류형 관광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군산=김판곤기자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준비 총력

군산시, 주요코스 대한 현장회의 ·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8일 개최되는 가운데,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마라톤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30일 마라톤 주요코스에 대한 현장회의를 통해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를 비롯한 주요의 차선상태,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역 경기가 어려울수록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군산을 방문하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로 국제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화합하는 군산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강변로의 코스 변경으로 최적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만큼 TV생중계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마라톤 당일 교통통제에 대한 사전의 폭넓은 홍보를 통해 차량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상자에 대비한 의료반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2012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공인 코스로 인정받아 매년 국내 · 외 엘리트 선수 등 1만여 명의 건국들이 풀코스 하프, 10km, 5km를 달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대회다.

/군산=김판곤기자

문태규 예비후보, 군산 3대 비전 발표

문태규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시민이 자긍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선진도시 군산을 만들겠다"며 ▲신산업 선도도시 ▲1000만 관광문화도시 ▲행복지수 1급 도시 군산 등 3대 비전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첫 번째 비전 ▲신산업 선도도시와 관련, 새만금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기반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수소 전기차 관련 부품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첨단 강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100개 지정 육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미래 신기술 기업이 풀려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비전 ▲1000만 관광문화도시

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원 도심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아시아근대문화유산 벨트로 업그레이드하고, 고군산군도와 원도심을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 금란도 예술 섬 조성, 드론예술페스티벌 개최, 옛 해양경찰서 리모델링에 의한 영상촬영지원센터 설치, 테마가 있는 골목에 스킨십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세 번째 비전 ▲행복지수 1급 도시 정책으로 365일 24시 아동응급센터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종일반 확대, 가정배출 가구류 무료수거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및 중금속검사 실시, 지역상품권사용 확대, 체육시설 확충에 의한 스포츠복지 향상 등을 제시, 시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구제역 긴급 가축방역대책협의회 개최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발생에 따라 익산시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익산시청,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축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시에서 추진할 차단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각 기관 · 단체별 주요업무 및 역할분담에 대해 협의했다.

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합리

소재 가축시장을 지난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시폐쇄하고 폐지 81호 10,712두에 대해 구제역백신을 긴급공급하고 소 · 염소 사육농가(42천두) 일제접종을 4월 7일까지 신속히 집중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이용해 주 1회 우제류 전농가가 소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마을방송시 홈페이지 배너창 등을 이용해 구제역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 · 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